

생산적 노화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 및 생산적 노화 척도의 타당성 분석

이 주 일* 강 연 욱 김 지 현 유 경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생산적 노화에 대한 세대 차이와 이런 생산적 노화가 개인의 성공적 노화와 관련되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Caro, Bass, 그리고 Chen(1993)의 생산적 노화 정의에 따라 20문항으로 된 생산적 노화를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20문항으로 측정한 노인의 생산적 노화에 포함되는 첫째요인은 노후에 인생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 둘째요인은 자기경력 개발 활동을 하는 것, 셋째요인은 가족지원 활동을 하는 것, 넷째요인은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성공적 노화를 보내는데 네 가지 생산적 활동이 가지는 중요성에서 세대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과 그 이전 세대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노인들에 비해 젊은 세대들은 노후에도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기개발 활동을 하는 것,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유의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생산적 노화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이 20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20문항은 4가지 요인으로 구분이 되었으며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 또한 양호 하였다. 생산적 노화의 4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주관적 안녕감 및 삶의 의미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생산적 노화의 네 요인에 대한 중요성인식은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의 세 가지 성격의 중요성인식을 통제 한 후에도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었다. 또한 현재 일하는 노인들과 일하지 않는 노인들 간에는 생산적 활동이 삶에 미치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목표 지향적 활동을 하는 것이 인생만족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하지 않는 노인들에게는 그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주요어 : 생산적 노화, 성공적 노화, 성격, 일하는 노인, 세대차이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7-B00975).”

† 교신저자 : 이주일,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jilee@hallim.ac.kr, 033-248-1723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것이 화두다. 생물학자인 최재천(2005)은 생물학자답게 인생을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 두 시기로 나누어 전기를 번식전기라 하고 후기를 번식후기라 나누고, 이 번식후기를 어떻게 잘 보내는가가 성공적인 노년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그가 말한 번식이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특정 종의 번식 뿐 만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에서의 번식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생물학적인 차원의 번식과 이를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한 삶도 여기에 해당된다. 번식후기란 이런 고민이 없어지는 시기라는 뜻으로,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 등과 관련되는 고민에서 벗어나는 시기라는 긍정적인 뜻과 이런 활동을 더 이상 못하는 시기라는 부정적인 뜻도 포함된다. 물론 최재천은 전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번식후기란 말을 사용하였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번식후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의미 있는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할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즉 번식후기의 삶을 단지 번식전기의 삶에 덧붙여진 삶으로 여길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이 번식 후기는 너무 긴 세월이고, 번식전기보다도 더 의미 있고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번식후기의 삶을 규명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적 노화란 이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제기된 이념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생산적 노화에 대한 논의는 일찍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유럽 쪽에서 먼저 제기되었으며,

일본, 중국 등에서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논의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번식 후기 삶의 긍정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개념으로서 생산적 노화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행되었다. 척도개발에 관한 논의에 앞서 생산적 노화에 관한 개념논의를 살펴보고, 생산적 노화활동이 성공적 노화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생산적 노화 및 활동적 노화의 의미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eing)란 용어는 Caro, Bass 그리고 Chen(1993)에 의해 구체적이고 개념적으로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들은 생산적 노화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출하는데 기여하거나, 이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노인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생산적 노화의 핵심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에 두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의미 있는 활동들은 생산적 노화의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가사활동이나 자기관리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생산적 노화 활동에 포함되는 영역으로 그들은 직접적으로 유 무급의 일을 하는 것,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 가족을 지원해주는 활동을 하는 것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경력을 키우는 자기개발활동을 포함하였다.

생산적 노화란 영역 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이견이 있으며, 연구된 내용들도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다양하다. 먼저 생산적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우선 Caro 등(1993)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이런 영역에서 제외되는 활동은 생산적 노화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대표적인 활동으로 가족을 위해 식사준비를 하고, 세탁을 하고 집 안청소를 하는 것과 같은 가사활동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Herzog, Kahn, Morgan, Jackson 및 Antonucci(1989)는 이런 가사활동도 당연히 생산적 노화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논란이 되는 또 다른 활동의 예로 자신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활동들을 들 수 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챙기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은 자신 뿐 만 아니라 주위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활동일 것이다. 노화연구의 또 다른 선도자들인 Butler와 Gleason(1985)은 자신을 스스로 보살피는 이런 자조적 활동을 생산적 활동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노년이 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주요한 활동으로 레저나 여가 활용에 관한 활동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활동들을 Caro 등(1993)은 생산적 노화의 영역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한 활동으로 인한 결과가 주로 자신에게 향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즉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가 주위나 사회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해석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Caro 등이 포함시킨 생산적 활동내용도 그 방향이 자신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꽃꽂이나 서예를 배우는 것과 같은 자기개발활동은 생산적 노화에 포함되는데 이런 활동도 사회적 활동보다는 자신에 초점을 둔다는 면에서 레저 활동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런 모든 개념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활동적 노화는 생산적 노화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노인들이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활동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다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적인 개념이다. 활동적 노화는 WHO에 의해 “노인이 되어서도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 참여, 안전의 기회를 최적화 시켜주는 과정”으로 정의된다(WHO, 2002). 즉 활동적 노화란 노인이 되어서도 노인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적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시민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활동적 노화는 노인들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나 지역사회가 발 벗고 나설 것을 강조한다.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활동적 노화란 개념에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노인들의 가사활동, 노인들 자신의 독립성을 키우기 위한 활동, 각종 레저나 여가활용을 위한 활동들도 포함이 된다.

본 연구는 활동적 노화보다는 생산적 노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생산적 노화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일치되는 정의는 없지만 생산적 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생산적으로 정의되는 활동에는 첫째,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사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셋째,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Barker, Cahalin, Gurst & Burr, 2005). 본 연구에서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생산적 노화와 활동적 노화에 내재되어 있는 가정은 활동적인 노인이 행복하다는 가정이다. 이런 가정은 Rowe와 Kahn(1998)의 성공

적인 노화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 이래 많은 사람이 수용하는 관점이다.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냐, 이전에 하던 활동을 줄이고 사회적 활동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조용히 물러났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오래된 것이냐(Cavan, Burgess, Havighurst, & Goldhammer, 1969; Cumming, Dean, Newell, & McCaffrey, 1960). 실증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최근 연구들은 주로 활동적인 노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김상대, 2009; 조용하, 2009; 한경혜와 손정연, 2009).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의 예비노인, 65세에서 70대 초반의 전기노인,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에게 노후를 잘 보내는 사람의 특성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어본 연구(정병은과 이기홍, 2009)에서 조사 대상 노인들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활동적인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심리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 뿐 만아니라 신체 건강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김상대, 2009; McInnis & White, 2001).

한편, 생산적 노화와 활동적인 노화를 주창하는 사회전반적인 시각에 회의적인 시선을 던지며, 이 자체를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비판들은 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생산적 노화가 대두되게 된 사회학적 의미나 정치경제적인 의미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Moody, 2001; Taylor & Bengtson, 2001). Moody(2001)는 생산적 노화란 개념이 1990년대 후반 들어 유럽에서 중점적으로 제기되면서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시기의 서유럽의 사회경제

적 특성을 사회구조적인 차원과 이념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 즉 서유럽 사회가 부담하게 된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산적 노화란 개념이 대두된 것이란 입장이며, 사회제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몫을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Taylor와 Bengtson(2001)은 생산적 노화 운동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면서도 생산적 노화 운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생산적 노화란 주제가 자칫 사회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계층에 속한 노인들이 노후가 되어서도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당연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후에는 모든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고, 이런 노력의 책임은 당연히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데, 생산적 노화주창자들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그런 노력의 책임을 개인 자신에게 돌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적 노화의 4차원과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 개념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나 이의 정치경제학적인 효과는 본 논문의 논의 사항이지만 그 의미를 간단히 살펴본 것은 생산적 노화의 책임이 노인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초점을 노인자신에게 돌려 생산적 노화는 바로 성공적 노화를 의미하는가? 성공적 노화란 장수, 건강한 노년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한마디로 성공적인 노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심리적인 차

원, 주위사람들과 얼마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사회관계적인 측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질병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신체적인 측면, 노후의 삶을 안전하고 안락하게 유지하고 주식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경제적 측면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생산적 노화는 이런 성공적 노화 상태와 어떤 관련들이 있을까? 우선 생산적 노화의 네 가지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생산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생산적 노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연구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다. 많은 연구들에서 노인이 되어서도 직업을 가지고 전일제든 시간급이든 유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Barker 등, 2005). 어느 경우든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기술사용의 기회, 삶에 대한 통제감 제공, 목적의식과 사명감 부여, 주위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Warr, 1987). 직업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바빠서 정신없을 때는 며칠 편히 쉬고 싶고 일로부터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일이 없는 삶을 추구하지만, 이런 정규적인 일이 없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순간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무의미감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의심하게 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60세 이상 노인 2,573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김진욱과 손진욱, 2009)에 의하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5점 척도 중에 3.95였으며, 주관적으로 자신의 경제형편이 양호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경제형편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높았다. 참여자들에게 이런 일자리 사업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보수가 없어도 자원봉사형태로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사람이 41%, 보수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44%에 해당되었다. 이에 비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15%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는 노인들이 일을 하는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벌기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반드시 일을 하는 노인들이 일하지 않는 노인들에 비해 더 행복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때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마지못해 선택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도 일을 할 수밖에 없을 수 있으며, 호구지책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원하는 일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노인들이 일에 대해 가지는 의미는 젊은 사람들이 일에 대해 가지는 의미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을 가진다는 것을 단순히 유급의 일을 가진다는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좀 더 넓은 의미로 설정하여“정기적으로 할 일이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해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 조절을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생산적 노화의 두 번째 활동으로 노인의 봉사활동과 성공적 노화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노인들의 봉사활동은 그 자체로 직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별다른 소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의 경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유일한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밝혀졌다. 특히 노인들의

봉사활동은 노인자신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몇몇 연구결과를 보면 노년기에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노인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해주고(조운주, 2008), 안녕감을 높여주고(이은주, 2005),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이금룡, 2003). 또한 참여자들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준다(김주현과 한경혜, 2001). 일본노인들의 자원봉사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한 김윤정과 장세철(2009)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었으며, 노후의 삶을 의탁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인생공부를 하는 기회였다고 응답하였다. 봉사활동은 흔히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수혜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무료로 단순히 베풀어 주는 활동으로 국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봉사활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전수해주는 활동으로 때로는 유급일 수도 있으며, 무급으로 제공될 수도 있는 것이다(Trafford, 2004). 본 연구에서는 봉사활동을 단순히 자원봉사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경험을 사회에 전수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생산적 활동의 세 번째 영역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을 살펴보겠다. 최근들어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고,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조부모까지 삼 세대가 함께 가족을 이루거나 가까이에서 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는 가족내 구성원간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자녀를 돌볼 어

린이 시설이나 나이든 부모님을 돌볼 시설이나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기존 시설에 대한 질적 만족도 또한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를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가족 내에서 일정한 부분 가족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은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하는 일종의 의무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가족내 유대관계를 높이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결과로 인해 가족내 지원활동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지원활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많은 유의미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조용하(2009)는 65세 이상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단체활동, 교육문화 활동, 가족공동 활동, 감성 활동, 단순소일 활동과 삶의 만족수준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모든 사회활동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족공동 활동과 단순소일 활동은 교육문화 활동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가족 공동체 지향 활동 중에서는 가족대화과 유아 돌봄, 요리 및 집안 가꾸기, 가족나들이와 외식이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집에서의 활동은 다른 활동보다 만족도가 낮았고 남성노인들에 비해 여성노인은 집에 있을 때의 만족도가 다른 공간에 있을 때의 만족도보다 낮게 나왔다(한정현과 손정연, 2009). 이런 결과들은 가족에 대한 지원활동은 그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가사 일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활동을 해야 하는 여성노인들에게는 가정

에 대한 지원이 양가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자신의 주위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활동들”이라고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활동의 네 번째 영역인 자기개발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다. 최근 들어 나이가 든 후 새로이 공부를 시작하거나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의욕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특성은 많은 성공적인 노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주요한 특성중의 하나이기도 하다(Bennis와 Thomas, 2002). 미국의 경우 나이든 많은 사람들이 학교로 돌아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데, 50세가 넘는 사람들 사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교육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최근에 8만 5천명에 달하는 50세 이상의 남녀들이 학부와 대학원에 풀타임으로 등록하고 있고, 파트타임 학생도 44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약 12만 명이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으며 이들 중 절반이 여성이다. 또한 수백만 명 이상이 학점 없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Trafford, 2004). 노인에게 대한 교육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노인에게 대한 취업교육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노인에게 대한 태도,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김수영, 2009). 또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노인들은 자신에 대한 자아 통제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자, 2007). 실버리더십에 대한 교육에 참여한 후 노인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 효능감이 높아졌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이 높아졌으며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아졌다. 교육이 끝

난 후 참가 소감을 물어 본 결과, 교육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이 생겼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감이 높아졌다는 응답 등을 하였다(이주일, 2010). 노인의 교육 참가나 자기개발 활동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Bass & Caro, 2001). 활동참여 자체가 목적인 표현적인 것과 다른 목적을 위해 수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표현적인 교육활동이란 노인들에게 개인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많은 대중 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노인대학이나 기타 많은 성인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이에 해당된다. 수단적인 교육활동이란 학점이나 자격증을 부여하는 공식적인 교육으로 직업교육 센터나 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기경력 개발 활동의 영역을 설정하고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제반 활동들”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적 노화로 이야기되는 4가지 활동은 성공적인 노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다만 생산적 노화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연구한 결과들은 Caro 등(1993)이 제시한 네 가지 차원의 생산적 노화 활동을 하나로 통합되는 개념으로 다루기보다는 각각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생산적 활동의 수나 빈도와 같은 수량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이런 연구들의 예로, 일을 하는 것이 개인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김진욱과 손지윤, 2009), 생산적 활동의 수나 참여

정도가 삶의 만족, 우울, 행복도와 같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Barker 등, 2005),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김윤정과 장세철, 2009; Morris & Caro, 1993), 자녀지원활동을 하는 것이 노인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한경혜와 손정연, 2009), 자기개발활동을 하는 것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권중돈과 조주연, 2000)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생산적 활동을 각기 구분해서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이 네 가지 영역을 하나의 통합되는 개념으로 여기려고 하지도 않았다. 또한 연령과 상관없이 이 4가지 영역의 생산적 활동을 모든 연령층이 성공적인 노화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여길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그러나 생산적 노화라고 여겨진 활동에 대해 연령에 따라 중요성이나 성공적 노화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라온 세대나 가치관에 따라 노후에 특정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적 활동에 대해 세대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노화 활동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세대 간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하였다. 즉 본 연구는 생산적 노화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생산적 노화에 관한 척도를 구성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생산적 노화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생산적 노화에 관한 실행도에서의 차이보다는 인식차이를 먼저 보고자 한 것은 생산적 노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특정 활동을 생산적 노화라 보는지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보고자 했고, 이를 토대로 생산적 노화란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생산적 노화의 4가지 영역들을 한꺼번에 연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네 차원을 각기 구분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별도로 연구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네 차원을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보고자 한 Caro(1993) 등의 시도를 수용하여, 생산적 노화를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설정한 각 항목들에 대해 세대 간에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잠정적으로 설정한 가정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지금 현재의 노인은 과거의 노인들과는 다르다. 우선 물리적으로 평균수명에서 차이가 있고, 건강상태에서 차이가 있으며, 교육배경이나 사회적 조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재의 노인과 미래의 노인은 또한 지금과는 또 다른 차별성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생산적 노화를 바라보는 입장 또한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는 입장이 세대 간에 차이가 날 것이다. 어렸을 때 가난한 시절을 보낸 지금의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는 것을 자원봉사 활동이나 자기개발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이에 비해 지금의 젊은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겠지만 노후에도 자기개발 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에도 많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에

생산적 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앞서 설명한 생산적 노화의 개념적 정의에 따라 이런 생산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어떤 요소들에 의해 생성이 되며, 생산적 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또한 개인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생산적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인구학적인 변인들의 차이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보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보다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더 많으므로(김진욱과 손진욱, 2009)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며, 아이를 직접 키워본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자녀를 지원해주는 활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구학적인 차이 외에 성격특성에서의 차이가 생산적 노화에서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선 잠정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는 것으로 개방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McCrae & Costa, 2002). 따라서 개방적인 성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노후가 되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고 도전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주도적으로 남들 앞에 나서서 활동하려 하는 사람들이다(McCrae & Costa, 2002). 따라서 외향적인 성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봉사활동에 보다 열심히 참여하려 할 것이다. 또한 성실한 사람들은 근면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McCrae & Costa, 2002). 따라서 성실성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노후가 되어서 일을 하고 가족을 지원해주는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앞서 언급한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연구들에서와 같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보다 만족해하는 삶을 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노화에 관한 척도를 구성하고 척도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위에서 설명한 이런 가정들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생산적 노화 척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수리적인 분석을 위주로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는 척도개발만이 아니라 생산적 활동이 주는 세대간 의미차이를 분석하는 것에 주된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노화의 실태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노화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분석하는 중다 특성-중다 방법(multitrait-multimethod) 분석과 같은 분석은 최소화하고 척도의 준거적 타당성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을 택하였다.

연구 방법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으로, H 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소에서 시행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조사된 최종 사례 수는 연령별로 20-34세 195명(19.5%), 35-49세 192명(19.2%), 50-64세 205명(20.5%), 65-74세 205명(20.5%), 75세 이상

203명(20.3%)이었다. 성별로 분류해보면 남성 453명(45.35), 여성 547명(54.7%)였다. 거주지역으로 구분하면 대도시지역 거주자가 450명(45%), 중소도시 거주자가 422명(42.25), 군 및 농촌지역 거주자가 128명 (12.8%)이었으며,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 202명(20.2%), 부산 76명(7.6%), 대구 48명(4.8%), 인천 51명(5.1%), 광주 26명(2.6%), 대전 28명(2.8%), 울산 19명(1.9%), 경기도 204명(20.4%), 강원도 35명(3.5%), 충청도(80명(8%), 전라도 93명(9.3%), 경상도 138명(13.8%)였다. 결혼여부를 보면 배우자와 동거중이 614명(61.4%), 배우자와 사별 210명(21%), 미혼 145명(14.55),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중 31명(3.1%)였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521명(52.1%),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463명(46.3%), 휴직, 실업자 등 기타가 16명(1.65)였다.

조사절차

표본추출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한 다단계 층화 지역 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문 조사 회사를 통한 대면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성공적 노화에 관한 세대별 인식비교를 하기 위해 연령 집단별로 목표 사례수를 200명씩 표본할당을 하였는데, 세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단순 인구비례가 아니라 노인층에 더 많은 비율이 포함되도록 표본할당을 하였다. 1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부적절한 문항과 표현, 배열 등을 조정하였다. 본 조사 기간은 2008년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였으며, 설문지 기입은 조사전문기관의 훈련된 면접원이 기입하였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응답자가 자기기입하도록 하였

다.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50분에서 60분이었고 조사대상자는 조사에 응답한 대가로 소정의 선물을 받았다.

척도구성

생산적 노화

척도개발. 본 연구에 사용한 생산적 노화 관련 문항은 Caro 등(1993)의 생산적 노화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자와 연구실의 대학원생들이 문항을 개발하였다. Caro 등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 영역에 대해 10문항씩 생산적 노화를 구성하는 문항을 40문항 제작하였다. 문항의 제작은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시행해온 세대통합 프로그램과 실버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과의 인터뷰와 노인들의 생산적 활동을 언급한 문헌들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기술된 문항에 대한 정리 작업을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생산적 노화의 네 차원에 대해 차원 당 5문항씩을 도출하였다. 원래 개발한 10문항 중 5문항을 도출한 과정은 본 연구자와 본 연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대학원생 3인의 평가에 의하였다. 최종문항을 도출하기 위해, 대학원생 3인이 각각 각 문항을 읽고, 해당문항이 속한 생산적 노화의 세부차원의 정의내용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1에서 “매우 잘 반영한다”의 10점 척도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10점 척도에 평가한 3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을 5개씩 선정하였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의 조정회의를 통해 문항을 합하거나 재조정하여 각 차원 당 5문항씩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문항은 뒤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세대간 생산적 활동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차이

문 항	20-34세	35-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전체	F
요인 1. 목표지향적 활동하기 전체	3.52 a	3.54 a	3.51 a	3.22 b	3.15 b	3.39	12.30 ***
1 인생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다.	3.61 ab	3.67 a	3.66 a	3.46 ab	3.37 b	3.55	3.91 **
2 매일 또는 매주 해야 할 일들이 있다.	3.68 ab	3.69 ab	3.79 a	3.57 ab	3.50 b	3.65	3.12 *
3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하는 일이 있다.	3.58 a	3.63 a	3.60 a	3.30 b	3.22 b	3.46	7.77 ***
4 연금이나 자식이 주는 용돈 외에 수입이 생기는 일이 있다	3.46 a	3.48 a	3.42 a	3.05 b	3.02 b	3.29	8.07 ***
5 정기적으로(주급/월급) 급여가 주어지는 일에 종사한다.	3.25 a	3.22 a	3.09 a	2.73 b	2.61 b	2.98	11.18 ***
요인 2. 경력개발활동하기 전체	3.16 a	3.12 a	3.02 a	2.74 b	2.63 b	2.93	12.19 ***
6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교육에 참여한다.	3.30 a	3.30 a	3.16 a	2.81 b	2.69 b	3.05	12.46 ***
7 독서나 TV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한다.	3.34 a	3.29 a	3.30 a	2.94 b	2.66 b	3.10	15.09 ***
8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강의나 특강을 수강하고 있다	3.15 a	3.11 ab	3.02 abc	2.82 bc	2.65 c	2.95	6.59 ***
9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3.36 a	3.38 a	3.28 a	2.93 b	2.84 b	3.15	9.86 ***
10 간병인, 요리사 등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한다.	2.53 a	2.65 ab	2.32 abc	2.19 c	2.31 bc	2.40	4.71 ***
요인 3. 가족지원활동하기 전체	3.22 a	3.22 a	3.18 a	3.00 a	3.05 a	3.13	2.87 *
11 일을 하는 자녀들의 가사 일을 도와준다.	3.04 a	3.04 a	3.03 a	2.79 a	2.90 a	2.96	1.91
12 자녀들의 고민이나 인생 상담을 한다.	3.23 ab	3.41 a	3.42 a	3.11 b	3.26 ab	3.29	3.34 **
13 가족(자녀나 손자녀, 또는 부모)을 돌보는 활동을 한다.	3.26 a	3.14 a	3.06 a	2.97 a	3.06 a	3.10	1.87
14 가족(자녀나 손자녀, 또는 부모)이 하는 일을 도와준다.	3.30 a	3.21 a	3.17 a	3.12 a	3.06 a	3.17	1.39
15 형편이 어려운 가족(자녀나 손자녀, 또는 부모)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	3.25 a	3.27 a	3.21 ab	3.02 ab	2.94 b	3.14	3.95 **
요인 4. 자원 봉사활동하기 전체	3.16 a	3.12 a	3.00 ab	2.85 b	2.77 b	2.98	6.62 ***
16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11 a	3.06 a	2.87 ab	2.81 ab	2.73 b	2.91	4.01 **
17 사회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한다.	3.21 a	3.25 a	3.14 ab	2.90 bc	2.80 c	3.06	6.27 ***
18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재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활동을 한다.	3.14 a	3.19 a	2.96 ab	2.78 b	2.67 b	2.94	7.69 ***
19 동네나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눈치우기, 길거리 청소, 교통정리 등)을 한다.	3.03 ab	3.18 a	2.95 ab	2.79 b	2.75 b	2.94	5.04 ***
20 선거나 지역의 중요 행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13 a	3.14 a	3.11 a	2.98 a	2.88 a	3.05	1.95

주. *=.05, **=.01, ***=.001, abc = Turkey 사후 분석 결과에 따라 .05 수준에서 동일한 수준의 집단을 나타냄, 척도값은 5점 척도상에서의 값임.

측정척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생산적 노화의 첫 번째 차원은 “목표 지향적 활동하기”, 둘째 차원은 “경력개발활동하기”, 셋째 차원은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하기”, 넷째는 “자원봉사활동하기”로 명명하였다. 목표 지향적 활동하기의 예로는 “인생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다.”, “정기적으로(주급/월급) 급여가 주어지는 일에 종사 한다” 등이었고, 경력개발활동하기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교육에 참여 한다”,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강의나 특강을 수강하고 있다” 등이었다. 가족지원활동하기에는 “일을 하는 자녀들의 가사 일을 도와 준다”, “가족(자녀나 손 자녀, 또는 부모)을 돌보는 활동을 한다.” 등이 포함되었고, 자원봉사 활동하기에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 한다” 등이었다. 척도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뒤에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차례로 .78, .90, .84, .89였다.

행복감 척도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에 대한 측정은 행복도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측정하는 노인용 주관적 안녕감 척도와 행복도에 대한 인지적 평가차원을 측정하는 삶의 의미감을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PGCMS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Lawton, 1975)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이든 성인들을 대상으로 측정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척도로 평정감(non-agitation)을 측정하는 문항 6개, 노화에 대한 만족(aging satisfaction)을 측정하는 문항 5개,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외로움(life satisfaction/loneliness)을 측정하는 문항 6개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이주일(2004)의 연구에서 번안,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운이 넘친다”, “나는 젊었을 때만큼 행복하다”와 같은 문항들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알파는 .87이었다.

삶의 의미감. 삶의 의미감은 자신의 삶에 관한 실존적인 차원의 의미를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Paloutzian과 Ellison(1983)이 개발한 영적 안녕 척도 (Spiritual Well-being Scale) 중 실존적 삶의 의미감을 측정하는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래 Paloutzian과 Ellison(1983)은 영성을 종교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의 두 차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중 종교적 영성은 신과의 수직적 관계를 가정하고 종교적 의미를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실존적 영성은 자신과 타인, 환경과의 수평적 관계하에서 실존적 의미감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존적 영성만을 측정하여 삶의 의미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감을 측정하는 실존적 영성 척도는 최상순(1990)이 번안한 문항들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는 살아가는 것이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믿는다”, “산다는 것은 내게 많은 의미를 준다” 등의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를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7이었다.

성격척도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성격의 5요인 중 생산적 활동과 관련있을 것으로 여겨진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Goldberg(1999)의 IPIP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유태용, 한태영, 안상수, 신강현, 한영석, 탁진국, 노혜미(2006)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해 5문항씩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외향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등이었는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3이었다. 성실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항상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다”,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 등이었는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8이었다. 개방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상상력이 풍부하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때가 많다” 등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3이었다.

결 과

생산적 노화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세대간에 중요성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생산적 활동내용들 간에서도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생산적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차이는 전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미만의 비노인층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목표지향적 활동하기에 대해서는 비노인층이 노인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F_{(4,995)}=11.8, p<.001$), 경력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노인층이 노인층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F_{(4,995)}=12.19, p<.001$). 봉사활동하기 전체에 대해서는 노인층과 49세 미만 층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50-64세의 노인 예비층은 차이가 없었다($F_{(4,995)}=6.62, p<.001$). 이에 비해 가족지원하기 활동 전체는 연령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가지 활동 간에 중요도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목표지향적 활동하기($M=3.39$), 가족지원활동하기($M=3.13$), 봉사활동하기($M=2.98$), 경력개발활동하기($M=2.93$)순으로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상관없이 5개 연령 급간 모두에서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데 중요하다고 여기는 활동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1) 인생에서 성취할 목표가 있는 것, 2)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3) 인생목표를 위해 하는 일이 있는 것, 4) 연금, 용돈 외에 수입이 생기는 일이 있는 것, 5) 자녀들 고민이나 인생 상담을 해주는 것, 6) 가족이 하는 일을 돕는 것, 7) 가족을 돌보는 활동을 하는 것 순으로 나타났다. 이 활동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척도 중앙값(3점)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이 활동들은 주로 목표 지향적 활동하기와 가족 지원활동하기에 포함되는 활동영역이었다. 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데 중요한 활동으로 여기는 것이 할 일을 가지는 것과 자녀를 지원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노년 이전 세대만(65세 이전)이 성공적인 노년에 중요하다고 언급한 활동으로는 1) 정기적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일을 하는 것, 2)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것, 3)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4)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강의나 특강을 수강하는 것, 5)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 6) 일하는 자녀의 가

사 일을 돕는 것, 7) 사회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는 것, 8) 중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노년에 대한 인식에서 예비 노인세대(50세-65세 사이)는 노인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의 특징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측정된 20개 활동 중 6개 활동에서 노인 세대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젊은 세대와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예비 노인을 제외한 젊은 세대(50세 이전)들만이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언급한 활동으로는 1)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 2) 동네나 지역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 3) 자신의 재능을 다음 세대에 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활동들은 주로 경력개발활동과 봉사활동하기에 속하는 활동들로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성공적 노년에 중요한 활동이 노인세대가 바라보는 활동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노인전기세대(65세-75세)와 노인후기세대(75세 이후)는 대부분의 활동영역에서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간에 성공적인 노년을 보는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 활동은 하나도 없었다. 20개 활동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간병인, 요리사 등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

를 한다”는 문항이었다. 이 문항은 모든 연령층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생산적 노화 척도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생산적 노화 척도의 4가지 하위 요인 구성이 적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3가지 모형에 대해 실시하였는데, 생산적 노화의 4가지 요인을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 모형(모형 1), 생산적 노화가 애초가정대로 4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고 본 4요인 모형(모형 2), 생산적 노화의 전체 요인이 있고, 2단계로 세부 4요인으로 나누어진다고 본 위계적 모형(모형 3)으로 나누어 어느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큰지를 확인하였다. 모형간을 비교해본 결과 생산적 노화척도가 1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모형 1의 적합도가 가장 낮았다. 생산적 노화를 4요인으로 구분한 모형 2와 전체 요인과 하부요인의 2단계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모형 3은 적합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형 2의 χ^2 검정치가 보다 양호하였다. 따라서 생산적 노화의 문항 구성은 1요인보다는 4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생산적 노화 척도의 4요인 각각에 대한 신뢰

표 2. 생산적 노화 척도의 요인구조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χ^2	df	NFI	TLI	CFI	RMSEA
모형 1 (1요인)	3275.094	170	.701	.676	.710	.145
모형 2 (4요인)	1665.663	164	.866	.858	.878	.096
모형 3 (위계적 2차 요인)	1759.516	166	.859	.851	.870	.098

표 3. 생산적 노화척도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신뢰도
인생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1	.74	.782
	2	.74	
	3	.82	
	4	.52	
	5	.50	
경력개발 활동	6	.84	.895
	7	.84	
	8	.87	
	9	.81	
	10	.83	
관계에 대한 지원활동	11	.70	.837
	12	.61	
	13	.83	
	14	.86	
	15	.53	
지역 및 사회에 대한 봉사적 활동	16	.77	.888
	17	.86	
	18	.85	
	19	.76	
	20	.66	

주. 문항 번호는 표 1의 문항 번호임

도를 분석한 결과 인생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은 .78, 경력개발활동은 .90, 관계에 대한 지원활동은 .84, 지역 및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은 .89였다. 요인 부하량에 대한 분석결과 모든 항목이 .50 이상의 양호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생산적 노화와 관련 척도간의 관계분석

활동이론에 따르면 생산적 활동을 선호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적일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 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역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활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또한 개인이 활동적인가 아닌가는 성격특성과 많은 관련이 있다. 외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양한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할 것이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성실한 사람 또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일수록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생산적 노화의 네 영역과 성격특성, 행복감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목표지향활동은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및 주관적 안녕감, 삶의 의미감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r = .43, p < .001$; $r = .42, p < .001$; $r = .47, p < .001$; $r = .20, p < .01$; $r = .27, p < .001$). 경력개발활동은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및 삶의 만족도와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r = .44, p < .001$; $r = .41, p < .001$; $r = .55, p < .001$; $r = .08, p < .05$; $r = .18, p < .001$). 가족지원활동은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의 성격변인 모두 및 삶의 의미감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지만 주관적 안녕감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지 않았다($r = .41, p < .001$; $r = .36, p < .001$; $r = .41, p < .001$; $r = .11, p < .01$; $r = .03, n.s.$). 마지막으로 봉사활동도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및 안녕감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r = .53, p < .001$; $r = .48, p < .001$; $r = .58, p < .001$; $r =$

표 4. 생산적 노화 척도와 성격 및 안녕감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 목표활동	.78								
2. 경력개발활동	.665***	.90							
3. 가족지원활동	.466***	.507***	.84						
4. 봉사활동	.575***	.703***	.644***	.89					
5. 외향성	.426***	.443***	.413***	.525***	.83				
6. 성실성	.421***	.411***	.357***	.484***	.699***	.78			
7. 개방성	.467***	.553***	.406***	.580***	.742***	.719***	.83		
8. 주관적안녕감	.195***	.081*	.028	.109**	.170***	.176***	.097**	.83	
9. 삶의 의미감	.266***	.180***	.112***	.194***	.264***	.271***	.176***	.610***	.77
평균	3.384	2.929	3.129	2.979	3.394	3.415	3.145	3.262	3.413
표준편차	.775	.983	.844	.948	.685	.661	.729	.551	.612

* $p < .05$, ** $p < .01$, *** $p < .001$, $n=1000$, 대각선의 수치는 척도의 신뢰도

.11, $p < .05$; $r = .18$, $p < .001$). 이 결과는 생산적 노화를 구성하는 4가지 요인이 모두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을 중요시하는 성향과 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을 말해준다.

행복감에 대한 생산적 노화의 설명력

성격 요인은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가진다. 행복에 관한 연구 문헌들을 보면 개인의 행복은 성격특성과 높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은 개인의 행복체험과 높은 관련성을 보여준다(Nettle, 2005). 활동이론이 가정하는 바에 따르면 성실성과 개방성도 행복체험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여준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성향이나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은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McCrae & Costa, 1997).

본 연구에서도 앞의 표 4에서 보듯이 삶의 만족도는 생산적 노화와 유의미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성격요소를 통제하고도 생산적 노화 활동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성격요인을 1차로 회귀식에 투입하였고, 2차로 생산적 노화 요인을 투입한 후 설명량에 증가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생산적 노화가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비율은 성격변인을 통제하였을 경우엔 3.2% 유의미하게 증가하여($p < .001$) 성격변인과 함께 7.4%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비율은 성격변인을 통제하였을 경우에도 3.2%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나($p < .001$) 성격변인과 함께 전체

표. 5. 행복감에 대한 성격과 생산적 노화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안녕감		삶의 의미	
	R ²	F	R ²	F
모형 1	.043	14.752***	.092	33.758***
모형 2	.074	11.334***	.124	20.127***
R ² 변화량	.032	8.439***	.032	9.082***
	B(β)	t	B(β)	t
외향성	.122(.151)	3.048**	.176(.197)	4.087***
성실성	.115(.138)	2.919**	.185(.200)	4.332***
개방성	-.121(-.160)	-2.977**	-.169(-.201)	-3.846***
목표활동	.156(.219)	5.145***	.161(.204)	4.924***
경력개발활동	-.50(-.088)	-1.793+	-.006(-.009)	-.189 n.s.
가족지원활동	-.075(-.114)	-2.824**	-.057(-.078)	-1.987 n.s.
봉사활동	.038(.066)	1.282 n.s.	.033(.051)	1.013 n.s.

주 1. 모형 1: 3가지 성격변인만 모형에 투입된 경우, 모형 2: 3가지 성격변인에 생산적 노화변인 추가시, R² 변화량: 모형 1에서 모형 2의 변화량, B(β): 모형 2의 통계치

주 2. *p<.05, ** p<.01, *** p<.001

주 3. 척도들의 회귀계수는 모형2에 대한 회귀계수들임.

12.4%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생산적 활동 변인이 성격변인을 통제하였을 경우에도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에 따라 안녕감을 결정하는데 생산적 노화가 차지하는 비율에 차이가 생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앞에서 구분한 연령 급간별로 참여자를 분리하여 별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75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석에서 생산적 노화는 성격변인을 통제하고도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의미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적 노화가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비율은 적게는 3.35(50-64세의 경우)

에서 많게는 6.4%(65세-74세의 경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적 노화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증가는 65세에서 74세의 경우에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노인과 일하지 않는 노인간 생산적 활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차이

연령에 따라 생산적 노화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생산적 노화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따라서 생산적 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알아보

표 6. 연령세대에 따른 생산적 노화의 설명량의 차이

		주관적안녕감		삶의 의미	
		R^2	F	R^2	F
20-34세	모형 1	.096	6.750***	.109	7.759***
	모형 2	.152	4.780***	.154	4.880***
	R^2 변화량	.056	3.081***	.046	2.533***
35-49세	모형 1	.028	1.829 n.s.	.088	6.074***
	모형 2	.074	4.780*	.137	4.168***
	R^2 변화량	.045	2.255+	.048	2.584*
50-64세	모형 1	.081	5.886***	.143	11.221***
	모형 2	.135	4.379***	.177	6.045***
	R^2 변화량	.054	3.067*	.033	1.996+
65-74세	모형 1	.066	4.736**	.066	4.765**
	모형 2	.130	4.222***	.120	3.826***
	R^2 변화량	.064	3.650**	.053	2.982*
75세 이상	모형 1	.052	3.610*	.097	7.096***
	모형 2	.068	2.023+	.118	3.722***
	R^2 변화량	.016	.500 n.s.	.021	.324 n.s.

주 1. 모형 1: 3가지 성격변인만 모형에 투입된 경우, 모형 2: 3가지 성격변인에 생산적 노화변인 추가시, R^2 변화량: 모형 1에서 모형 2의 변화량,

주 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노인과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을 나누어 생산적 노화를 바라보는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이들 간에 생산적 노화와 행복감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은 총 408명이었는데, 이중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이 102명(25%),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이 301명(73.8%), 실업자로 일을 찾고 있는 노인이 5명(1.2%)였다. 이 중 실업자로 표시한 5명을 제외하고 두 집단 간에 생산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는 정도에 차이

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난 활동은 20개 활동 중 3가지로, 연금이나 자식이 주는 용돈 외에 수입이 생기는 일이 있다, 정기적으로(주급/월급) 급여가 주어지는 일에 종사한다, 형편이 어려운 가족(자녀나 손자녀, 또는 부모)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 였다. 즉,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실제로 급여가 주어지거나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고 있는 102명 노인들의 직업은 다양하였는데, 빈도가 많은 순으로 보면 농어업

표 7. 일하는 노인과 일하지 않는 노인간의 생산적 활동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차이

문 항	일하는 노인	일 안하는 노인	t
요인 1. 목표지향적 활동하기 전체	3.33	3.14	2.09*
1 인생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다.	3.31	3.45	-1.28
2 매일 또는 매주 해야 할 일들이 있다.	3.55	3.52	.26
3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하는 일이 있다.	3.36	3.23	1.17
4 연금이나 자식이 주는 용돈 외에 수입이 생기는 일이 있다	3.32	2.96	2.60**
5 정기적으로(주급/월급) 급여가 주어지는 일에 종사한다.	3.09	2.54	3.60***
요인 2. 경력개발활동하기 전체	2.75	2.65	.82
6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교육에 참여한다.	2.84	2.71	.94
7 독서나 TV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한다.	2.91	2.75	1.18
8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강의나 특강을 수강하고 있다	2.78	2.70	.58
9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2.97	2.84	.90
10 간병인, 요리사 등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한다.	2.25	2.25	-.01
요인 3. 가족지원활동하기 전체	3.04	3.03	.05
11 일을 하는 자녀들의 가사 일을 도와준다.	2.72	2.90	-1.36
12 자녀들의 고민이나 인생 상담을 한다.	3.08	3.23	-1.21
13 가족(자녀나 손자녀, 또는 부모)을 돌보는 활동을 한다.	3.07	3.01	.41
14 가족(자녀나 손자녀, 또는 부모)이 하는 일을 도와준다.	3.13	3.09	.29
15 형편이 어려운 가족(자녀나 손자녀, 또는 부모)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	3.19	2.92	2.07*
요인 4. 봉사활동하기 전체	2.87	2.79	.64
16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75	2.78	-.23
17 사회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한다.	2.82	2.86	-.26
18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재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활동을 한다.	2.90	2.66	1.68
19 동네나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눈치우기, 길거리 청소, 교통정리 등)을 한다.	2.84	2.74	.77
20 선거나 지역의 중요 행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01	2.90	1.78

주. *.05, **.01, ***.001, abc = Turkey 사후 분석 결과에 따라 .05수준에서 동일한 수준의 집단을 나타냄, 척도값은 5점 척도상에서의 값임.

표 8. 일하는 노인과 일하지 않는 노인간 생산적 노화 척도와 안녕감간의 상관관계 비교

변인		목표활동	경력개발활동	가족지원활동	봉사활동
일하는 노인	주관적안녕감	.264**	.029	-.079	-.021
	삶의 의미감	.341***	.037	-.024	.053
	외향성	.274**	.400***	.438***	.485***
	성실성	.470***	.459***	.366***	.519***
	개방성	.291**	.474***	.421***	.495***
일하지 않는 노인	주관적안녕감	.013	.000	-.026	.061
	삶의 의미감	.139**	.098+	.086	.134**
	외향성	.519***	.517***	.541***	.568***
	성실성	.407***	.403***	.425***	.497***
	개방성	.529***	.639***	.497***	.658***

* $p < .05$, ** $p < .01$, *** $p < .001$

29명, 자영업 8명, 노점상 6명, 경비원 5명 등이 5명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나머지는 목수, 건축자재 납품 등 다양한 업무에 1-2명씩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업유형을 분석해 보면 소규모농업 종사자, 수위나 경비와 같은 서비스직 종사자, 소도매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서의 지위는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2명, 상용직이 26명,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22명, 무급 가족종사자가 15명 등이었다.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 해도 일하는 노인들에게 있어 일하는 것은 행복감과 상당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일하는 노인과 일하지 않는 노인들간 생산적 활동과 행복감간의 관련성을 비교하면 재미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일하는 노인들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이나 삶의 의미감을

을 느끼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해 ($r = .264, p < .01$; $r = .341, p < .001$), 일하지 않는 노인들은 이런 목표지향적 활동을 하는 것이 행복감을 지각하는데 관련이 없거나 낮은 관련성을 보여주었다($r = .013, n.s.$; $r = .139, p < .01$). 반면 일하지 않는 노인들($r = .061, n.s.$; $r = .134, p < .01$)은 일하는 노인들($r = -.021, n.s.$; $r = .053, n.s.$)보다 행복감을 지각하는데 봉사활동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하는 노인이나 일하지 않는 노인이나 모두 성격적인 특성이 생산적 활동을 하는 것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생산적 활동을 성공적 노화라고 인식하는 정도에서 세대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적 노화척도를 구성하

기 위해 실시되었다. 먼저 Caro 등(1993)의 정의에 기반을 두고 생산적 노화를 구성하는 20 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고, 이 생산적 노화 활동 문항들이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간 차이를 분석한 다음 이 척도의 타당성 분석을 하였다.

생산적 노화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세대에 상관없이 모든 세대의 구성원들이 할 일이 있고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성공적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지원활동이었다. 경력개발을 위한 활동과 봉사활동 하기는 성공적인 노후활동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전체적으로 중간점수를 넘지 못하였는데,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들이 이런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64세 미만의 젊은 층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생산적 노화 요소 중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것, 경력개발활동하기, 자원봉사활동하기를 성공적인 노화활동으로 보는 정도는 65세 이상 노인층과 그 이후 세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20에서 30대 초반, 3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 50대에서 60대 초반 사이의 세 연령층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노인 연령층을 전기노인(65세에서 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나누어 본 결과 두 집단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데 생산적 활동 중에서도 목표 지향적이며 할 일을 가지고 수입이 주어지는 일이 있는 것을 모든 세대가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세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고 매일매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젊은 층일수록 이를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인 경력개발활동하기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기능을 전수하는 활동인 봉사활동 하기는 현재의 노인층들은 성공적인 노화를 구성하는 요소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으나 젊은 층은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층일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 사회를 위해 자신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활동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다양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성공적인 노화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 중 활동이론(Carvan 등, 1969)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지금의 노인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노인들이 바라보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더 많은 노인이 이 사회에 존재하겠지만, 이 노인들 중 지금보다는 더 많은 비율의 노인들이 다양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게 해준다. 즉, 더 많은 노인들이 유급무급의 직업을 가지고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하고자 할 것이며, 또한 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더 많은 노인들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활용

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보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생산적 노화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우선 척도 구조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애초 Caro 등(1993)이 제안한 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산적 노화는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이 네 가지 생산적 노화 요인은 구체적으로 첫째는 목표 지향적 활동하기, 두 번째는 가족 지원 활동하기, 세 번째는 자기 경력개발 활동하기, 네 번째는 자원봉사활동하기였다. 목표 지향적 활동하기는 단순히 급여를 받는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취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할 일을 가지며 남에게 의지하지 않을 정도로 급여를 받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이 된 후 목표도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주위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경력개발활동하기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직업을 언급한 간병인, 요리사 등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중요도에서 낮았는데, 성공적인 노화를 보내기 위해 특정한 직업을 갖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보다 포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 번째 생산적 노화 활동은 가족 지원활동하기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자녀나 부모를 돌보는 활동하기, 또는 자녀나 부모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가사 일을 돕거나 구체

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 등을 말한다. 가족지원 하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활동이지만 많은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는데 유의미한 가치를 가지는 활동이다. 젊은 층의 맞벌이가 활성화 되어 여성의 직장생활이 보편화되고 있고, 중년층의 조기퇴직으로 인해 할 일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며, 평균 수명이 길어짐으로 인해 삼 세대가 공존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의 가족지원 활동하기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봉사 활동하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활동이지만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고 공동체 사회를 원만하게 지속시키는데 매우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후손에게 자신의 재능을 물려주는 활동을 하는 것,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은 노인들로 하여금 사회 주체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 네 가지 요인이 구별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고, 각각의 신뢰도 또한 .78에서 .90까지 높게 나타났다.

이 4가지 척도에 대한 중요성인식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이 네 가지 생산적 노화 척도는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을 중요시여기는 정도와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행복감을 측정된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의미감과도 유의미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행복감에 대한 주관적 감정인 주관적 안녕감 보다는 인지적 평가차원인 삶의 의미감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Nettle(2005)은 행복을 3단계로 나누어 기

쁨, 즐거움 등의 순간적인 느낌들 차원의 1단계 행복과 복지상태, 만족과 같이 이 느낌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인 2단계 행복과 존재 및 자아실현 등을 이야기하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3단계 행복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관적 안녕감은 1단계 행복에 해당되고, 삶의 의미감은 2단계와 3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생산적인 노화활동들은 행복에 대한 느낌보다는 판단과 보다 관련이 높으며, 생산적인 노화 영역 중 특히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노후에도 지속하는 것이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개인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성격적인 요소가 많이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존 연구들은 외향적이거나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준다(McCrae & Costa, 1997; Nettle, 2005). 본 연구에서도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은 주관적 안녕감, 삶의 의미감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런 성격특성을 제외하고도 생산적 노화활동이 행복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해본 결과 생산적 노화는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의미감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나누어 생산적 노화가 성격변인을 통제하고도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의미를 설명해주는지를 분석해본 결과 75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생산적 노화는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같은 성격변인을 통제하고도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의미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점차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어 따라 생산적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않게 되어 설명력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일하는 노인과 일하지 않는 노인을 나누어 생산적 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차이와 생산적 노화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생산적 노화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현재 일하는 노인과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았다. 비교결과 급여가 주어지는 일에 종사하거나 용돈외의 수입이 생기는 일이 있다, 자녀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세 항목에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현재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 중 일하는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일하지 않는 노인들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생산적 노화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일하는 노인들이 일하지 않는 노인들보다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고, 일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하는 노인들의 경우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이 필요해서였고(응답자 중 67%), 가구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현재 일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본인이 일해 번 돈이 59%, 가족이 번 돈이 31%, 기타 10%인데 비해, 일하지 않고 있는 노인은 본인이 번 돈은 1%, 가족이 번 돈이 68%, 연금, 집세 등의 기타가 31%였다. 그러나 일하는 노인과 일하지 않는 노인을 나누어 행복감 및 성격변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일하는 노인은 목표 지향적 활동을 하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 및 삶의 의미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일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는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고 삶의 의미감과는 유의미하였지만 일하는 노인들이 보여준 관련성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상관을 보여 주었다. 성격변인들은 일하지 않는 노인이나 일하는 노인과 상관없이 생산적

노화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는 현재 일하는 노인의 경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일을 하지만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감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경제적 궁핍을 탈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목표 지향적 활동을 하고 급여가 주어지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노인들이 삶의 행복감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살펴보고 추후 연구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본 연구는 생산적 노화에 대한 실태연구가 아닌 인식연구라는 점이다. 세대별로 생산적 노화를 성공적인 노화로 바라보는 정도를 알아보는 연구인 관계로 실제로 얼마나 노인들이 생산적 노화에 참여하는지를 측정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생산적 노화 활동과 주관적 안녕감과 인생만족간의 관련도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앞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생산적 노화에 참여하는 정도가 가지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생산적 노화 척도에 대한 통계적 합치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인식조사로 인해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 생산적 노화의 4요인간 상관이 높고, 성격변인 3요인의 상관이 높은 것도 인식조사로 인한 문제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하는 노인과 일하지 않는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생산적 노화가 가지는 의미와 척도의 유효성을 재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생산적 노화에 포함되는 영역에 관한 제한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

는 활동적인 노화영역까지 넓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는 생산적 노화활동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효과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념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생산적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듯이, 개인이 처한 조건에 따라 생산적 노화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격요인을 성격의 5요인 중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만 측정하였는데, 나머지 정서적 안정성과 친애성 변인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김상대 (2009). 노인의 활동성 여가참여가 사회적 역할 상실감 및 삶의 질적 가치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레이션 학회지*, 33(3), 69-83.
- 김수영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사전교육의 효과성. *노인복지연구*, 43, 331-352.
- 김윤정, 장세철 (2009). 일본 노인의 자원봉사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일본어 문학*, 43, 279-300.
- 김주현, 한경혜 (2001).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한국노년학*, 21(2), 209-224.
- 김진옥, 손지윤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와 참여지속의사에 관한 연구: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4), 1295-1311.

- 유태용, 한태영, 안상수, 신강현, 한영석, 탁진국, 노혜미 (2006). 성격이 실직자들의 행동, 생애만족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07-124.
- 이승자 (2007). 아동노인간 세대공동체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주 (2005).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노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일 (2004). 노인의 대인애착 경향과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활동 및 지지적 관계의 추구.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11-29.
- 이주일 (2010, 인쇄중). 노화와 생산적 활동. 노화와 심리. 서울: 소화출판사.
- 정병은, 이기홍 (2009).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 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953-970.
- 조용하 (2009). 여성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삶의 만족수준에 관한 인과적 분석.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sulting Education*, 12(1), 1-28.
- 조윤주 (2008).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참여노인의 생섬감과 가족의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7(2), 191-205.
- 최상순 (1990). 일 지역 성인의 영적 안녕, 희망 및 건강상태에 관한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재천 (2005).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한경혜, 손정연 (2009). 경험표집법을 통해 살펴본 도시노인의 일상생활 경험: 공간/대인맥락과 정서경험에서의 젠더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3), 1159-1182.
- Barker, L. A., Cahalin, L. P., Gerst, K., & Burr, J. A. (2005). Productive activitie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The influence of number of activities and time commit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73, 431-458.
- Benis, W. G., & Tomas, R. J. (2002). *Geeks & Geezers* (시대와 리더십, 신현승 역 2003). 서울: 세종연구원.
- Butler, R. N., & Gleason, H. P. (1985). *Productive ageing*. New York: Springer.
- Caro, F. G., Bass, S. A., & Chen, Y. P. (1993). Introduction: achieving a productive ageing society. In S. A. Bass, F. G. Caro, & Y. P. Chen (Eds.) *Achieving a productive ageing society*. Westport, CT: Auburn House.
- Cavan, R. S., Burgess, E. W., Havighurst, R. J., & Goldhammer, H. (1969). *Personal adjustment in old age*. Chicago: Science Research Associates.
- Cumming, E., Dean, L. R., Newell, D. S., & McCaffrey, I. (1960). Disengagement: A tentative theory of aging. *Sociometry*, 23, 23-35.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domain, personal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In I. Mervielde, I. Deary, F. De Fruyt, & F. Ostendorf (Ed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Vol. 7, pp.7-28). Tilberg, The netherlands: Tilburg University Press.
- Herzog, A., Kahn, R., Morgan, R., Jackson, J., Antonucci, T. (1989). Age differences in

- productive activiti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4(B), 129-138.
- Lawton, M. P. (1975). The Philadelphia Geriatrics Center for Morale Scale: A Revision. *Journal of Gerontology*, 38, 181-189.
- McCrae, R. R., & Costa, Jr., P. T. (1997). Personality trait structure as a human universal. *American Psychologists*, 52(5), 509-516.
- McInnis, G. J., & White, J. H. (2001). A Phenomenological explorer of loneliness in the older adult, *Arch Psychiatric Nursing*, 15(3), 128-139.
- Moody, H. R. (2001). Productive ageing and ideology of old age. In Productive Ageing. In N. Morrow-Howell, J. Hinterlong, & M Sherraden(Eds), *Productive ageing:concepts and challenges*. Baltimore &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orris, R., & Caro, F. G. (1996). Productive retirement: Stimulating greater efforts to meet national needs. *Journal of Volunteer Administration*, 14(2), 5-13.
- Nettle, D. (2005). *Happiness: The science behind your smile*. 행복의 심리학. (김상우 역, 2006). 서울: 와이즈북.
- Paloutzian, R. F. & Ellison, D. W.(1983). "Loneliness, spritual well-being and the qaltiy of life." in Peplau L. A. and Perman D. (ed.). *Lonelo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John Wiley and son.
- Rowe, J. W. & Kahn, R. L. (1998). *Successful ageing*. New York: Pantheon.
- Taylor, B. A. & Bengtson, V. L. (2001).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productive ageing. In N. Morrow-Howell, J. Hinterlong, & M Sherraden(Eds), *Productive ageing:concepts and challenges*. Baltimore &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Trafford, A (2004). *My Time: Making the Most of the Rest of Your Life* (나이 듦의 기쁨, 오혜경 역, 2004), 서울: 마고북스.
- Warr, P. B. (1987). *Work,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Oxford: Clarendon Press
- WHO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WHO.

1차 원고접수 : 2010. 6. 24
2차 원고접수 : 2010. 7. 31
3차 원고접수 : 2011. 1. 13
최종게재결정 : 2011. 2. 18

Generation Differences in Importance Perception of Productive Ageing and the Validity Analysis of Productive Ageing scale

Juil Rie

Younwook Kang

Jihyun Kim

Kyung Ryu

Hallym University

Chungbuk University

This study has two purposes. One is to identify generation differences in importance perception of productive ageing. Second is to find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e ageing and successful ageing. First, we developed 20 items to measure productive activities based on Caro, Bass, & Chen (1993)'s definition. Our items were divided into 4 factors; to do activities for life goals, to do activities for self career development, to do activities for family assistance, and to do volunteering activities. In our research, we found generation differences in importance perception of productive activities for successful ageing. In comparison with the elderly, younger people considered it more important to do activities for life goals, career development, and volunteering in their old age. Productive ageing scale of 20 items newly developed for this study was divided into 4 factors in ou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reliability of 4 sub-scales was good. The importance perception of productive ageing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and life meaning. Even after controlling personality such as extroversions, conscientiousness, and openness, it explained significantly subjective wellbeing and life meaning. Lastly, working elderly and non-working elderly were different in meaning perception about productive ageing. Working elderly considered it important to do activities for life goals.

Key words : productive ageing, successful ageing, personality, working elderly, generation differences